



Cube Tree No.2 | magnolia leaves, cotton yarn, wood | 34,5Hx26,5Wx7Dcm(fra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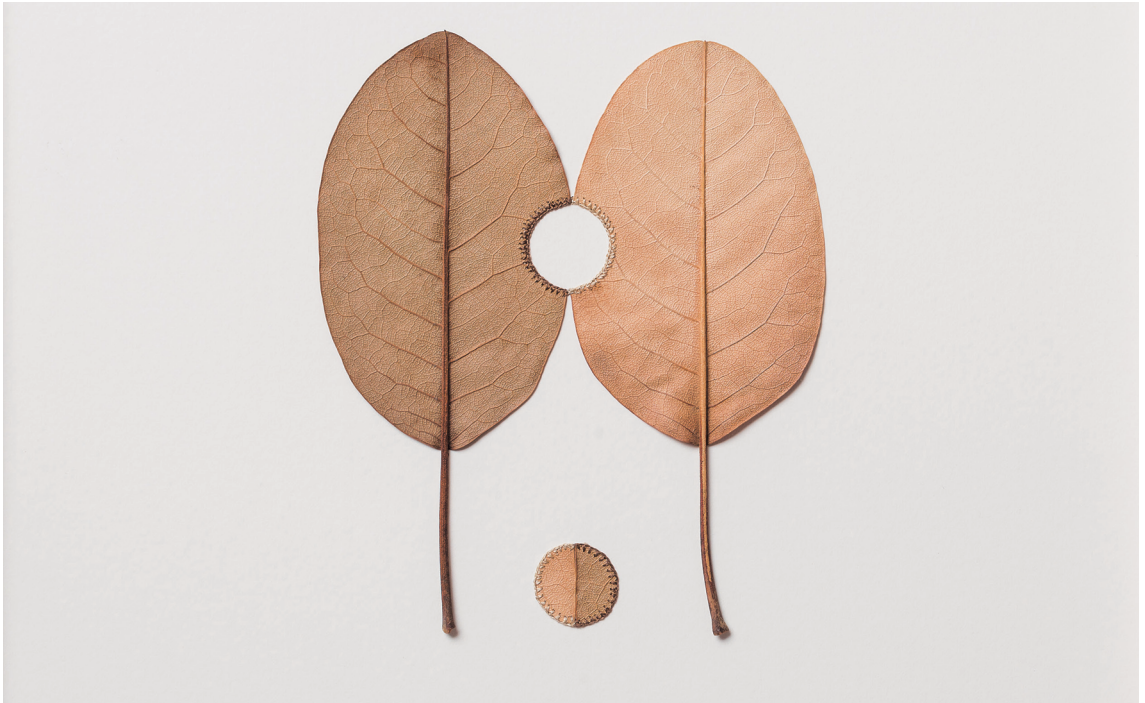
해외 아티스트

Susanna Bauer

## 그녀의 정교한 사랑법

걷다 보면 나뭇잎과 유목이 보여요. 혹은 그쪽에서 저를 발견하거나요.  
그것들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면 그때부터 나뭇잎과 나무 조각이 새 삶을 살기 시작해요.

글 이다영 기자 | 사진제공 Susanna Bauer



One, Two, Three | magnolia leaves, cotton yarn | 38x38cm



A Dance | magnolia leaves, cotton yarn | 52Hx52Wx5Dcm(framed)

수잔나 바우어(Susanna Bauer)의 정교한 조각품은 죽은 잎을 재정의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쉽게 간과되기 십상인 사소한 자연물에 담긴 의미를 자연물과 인공물의 공존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언뜻 현대 공예에 대한 독창적 접근으로도 읽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저 작고 연약한 것들에 대한 따뜻하고 섬세한 관심임을 알게 된다.

### 평범한 자연의 이야기

독일계 영국인 아티스트 수잔나 바우어는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재봉사였던 할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 초등학교 시절부터 재봉틀을 비롯해 뜨개질, 바느질과 같은 수작업 기술들을 배웠다. “어렸을 때 주변에 항상 바느질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Aligning | magnolia leaves, cotton yarn | 34.2Hx26.5Wx7Dcm(framed)

바느질 기술 몇 가지를 익혔고 훗날 그 경험이 하나의 기법으로 작업에 적용되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는 조경을 공부했는데, 자연물에 존재하는 유연성과 긴장감, 연약하면서도 강력한 힘, 그리고 질긴 저항성은 늘 흥미로운 주제였다. 그녀가 작품 소재로 마른 나뭇잎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주제들이 모두 포함된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수작업에 대한 수잔나 바우어의 애정은 그의 직업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광고와 영화에 쓰이는 모형제작자로 일하며 수작업 기술을 키워갔다. 영화 <10,000 BC>의 대형 초콜릿과 미니어처 피라미드가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되었고 영화 <웰레스와 그로밋: 거대토끼의 저주>에 등장하는 미니어처 시장과 아서왕을 위한 황금 잔 역시 그녀가 만든 작품이었다.

바우어가 살고 있는 콘월 지역에는 숲과 바닷가가 있는데, 산책을 즐기던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자연물들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다가





We Stand Together | drift wood, cotton yarn | 42Hx14Wx12Dcm



Adornment II | magnolia leaf, cotton yarn | 21Hx16,7wcm



Halves | magnolia leaves, cotton yarn | 45Wx28Hcm (framed)



Pair | driftwood, silk-mohair and cotton yarn  
34,5Hx26,5Wx4,5Dcm (framed)

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만지며 조용히 집중하는 순간에 힘을 얻는다는 걸 깨달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녀 안에 쌓여온 수작업에의 경험,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 끝으로 모형 제작으로 형성된 테크닉이 그녀의 내면에서 버무러지면서 그녀가 다다른 곳은 마침내 자연물 조각가의 길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흔해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마련인 자연물에 손을 놓기 시작했다. 낙엽을 둥글게 말아 껌메거나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하나로 엮거나 뜨개질로 돌을 감싸는 등 평범하던 자연물에 새로운 형상을 덧씌워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 작품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Centered | platanus leaves, cotton yarn | 38x38cm(framed)

### 사라질 것들에 대한 응시

작품마다 어울리는 색상, 크기, 질감이 다르니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는 바다 건너 독일에서 단풍잎을 가져오거나 프랑스 정원에서 은행나무 잎을 가져오기도 한다.

“저는 특히 목련 잎을 좋아해요. 모양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잎이 크기도 해서 입체적인 작업을 할 때 가장 애용해요.”

낙엽은 그녀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다. 촘촘하면서도 타이트한 바느질을 위해 낙엽에 얼굴을 밀착하다시피 하고 잎이 부스러지지 않게 주의하는 작업은 굉장한 인내심을 요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을 포착하기 위해 바늘 끝에 시선을 집중하고 완전히 몰두해 있는 시간이, 마른 나뭇가지에 조심스레 실을 통과시키는 순간이 즐겁고 소중한다고 말한다. 잎사귀나 나뭇가지 끝에 조심스레 장식을 입히는 행위가 대상을 존중하고 잠시나마 그들을 소멸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처럼 여



겨지기 때문이다.

그녀의 작품은 들여다볼수록 아름답다. 사소하고 연약한 것들이 대개 그렇듯 말이다. 그리고 작품 속 자연물을 살아 있는 생물체로 상상하면 그 안에서 빙글빙글 춤추는 낙엽과 어깨를 맞대고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나뭇가지 한 쌍을 발견하게 된다. 혹은, 낙엽에 수를 놓은 모습이 마치 상처를 봉합한 실밥처럼, 구멍 난 마음 한 편에 포근한 니트를 걸쳐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늘상 자신은 단지 자연물의 잠재성을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보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녀의 작품에는 연약함과 강함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위태롭지만 끈끈하게 서로를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녀의 작품을 예술로 만들어 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에 있다. 쉽게 부서지고 사라질 것들을 이렇게 오래 응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